

장편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의 성격발견

박사 부교수 최 련

1. 서론

장편소설이 문학사에 남기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이다.

훌륭한 장편소설에서 명장면이나 명세부를 론할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말할수도 있지만 그 모든것들의 중심에는 결국 주인공이 서있다.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성격이 다 자기의 형상과제를 가지고있지만 주인공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형상적위치로 하여 그 성격을 발견하고 깊이있게 그려주는것은 창작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주인공이 멋있어야, 주인공이 힘있고 매력있는 인물이어야 독자들은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인공의 운명의 길을 따라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인간성격은 작가자신이 발견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인공이 지닌 남다른 성격을 발견하지 못한 작가는 붓을 들 권리가 없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54페이지)

생활반영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며 하나의 시대적화풍을 창조해야 하는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은 주제의 체현자, 인물형상집단의 대표자, 용적이 큰 문학적이야기의 극을 안고있는 인물로서 자기의 형상적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발견문제는 새로운 시대적문제를 체현하고 전반형상과정속에서 독자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감흥과 매혹을 줄수 있는 특색있는 성격을 발견하는 문제이다.

2. 본론

2.1. 시대변화발전의 체현자, 체험자로서의 성격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시대의 변화발전의 체험자, 체현자로 발견되여야 한다.

주인공이 시대의 변화발전의 체험자, 체현자로 된다는것은 주인공이 시대와 력사발전의 새로운 문제가 제시되는 생활마당에서 시대의 변화발전과정을 체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이 시대의 변화발전의 체험자, 체현자로 설정되여야 장편소설이 내세우는 기본주제 즉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문제를 체현할수 있으며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감수할수 있다. 시대가 새로운 발전의 경계선에서 겪는 심각한 진통속에서 주인공은 고민하며 자기의 출로를 찾아 번민하고 투쟁한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며 작가가 제기한 주제사상을 인간학적으로 증명한단.

시대발전을 구획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사회제도의 발전이다. 사회제도가 달라진

다는것은 곧 사회전반을 특징짓는 사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환경의 심각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류문학사를 빛나게 장식한 명작들속에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세워지는 과정속에서 인간들의 운명문제를 다룬 장편소설들이 많으며 그러한 장편소설들에서의 주인공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의의를 밝히는 뚜렷한 성격들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풍만하고도 매력있는 성격으로 서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대하는 흐른다》, 외국장편소설 《고난의 길》, 《고요한 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작품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시대의 탄생》에서 박세철이나 전학민, 《대하는 흐른다》의 마영기, 《고난의 길》에서의 로썸이나 켈레긴, 까짜와 다샤, 《고요한 돈》의 그리고리 벨레호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레트와 같은 주인공들은 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세워지는 과정속에서 이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직접 체험하고있으며 그 변화발전의 특징을 체현하고있다.

시대의 변화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있는것만큼 뚜렷하고 사변적인 변화발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추세, 환경을 창조하며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그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적추세와 환경 등은 다 새로운 시대의 본질적특징과 그것이 그 시대에 사는 때 사람들의 운명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하여 장편소설이 다루어야 할 생활마당으로 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의 주인공 유철(박진규)은 각양각색의 못사조들과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저저마다 혁명을 떠들던 1920년대의 혼란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력사의 경계선에 서있다.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에 나선 열혈의 조선청년으로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법정에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여 열변을 토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으나 혁명의 옳바른 길을 알수 없어 고민하고 방황한다. 그가 서대문감옥에서 나와 변호사 서천호의 집에서 여러 운동가들을 만나보고 느낀것은 조선혁명의 앞길에 대한 암담한 전망뿐이었다.

《진규는 새삼스레 눈길을 돌려 방안을 살폈다. 웨치는 사람도 있다. 책장과 신문장을 번지며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있는 사람도 있다. 서천호의 조카딸과 나란히 앉은 청년들은 열정에 넘치는 시선으로 모든 말, 모든 거동을 주시하고있다. 통털어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두고 안타깝게 모대기고있는 군상들이었다. 조선의 량심적인 지성이 몸부림치는 이 응접실은 무엇때문인지 진규의 가슴에 애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나라를 생각하여 안타까와하고 괴롭게 모대기고있으나 그들이 보는것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뿌옇게 흐린 회색빛의 아리송한 조선의 전망이었다.》

혁명의 진로를 찾아, 옳바른 명도자를 찾아 헤매이던 주인공은 길림감옥에서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도 찾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게 된다.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단계, 발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힘찬 그러한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세대, 앞선 시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참으로 혁명적인 세대가 력사무대에 진출하였다. 생각하면 서대문 감옥을 나오면서 느낀 첫인상, 군중의 폭동적진출과 양양되는 혁명적기분에 대답을 줄 진정한 혁명의 영재, 폭동의 예술가는 이 새로운 혁명의 세대가운데서 반드시 태어나고야말것이다. 그것은 엄숙한 력사의 요구이며 절박한 시대의 요구이다.》

이렇듯 주인공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력사의 경계선에서 지난 시기와는 다른 새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있다.

《유철은 건잡을수 없는 흥분때문에 신접힌 사람처럼 감방안을 맹렬한 기세로 오락가락하였다. 철창을 움켜쥐고 뒤흔들어본다. 행진이라도 하듯 발걸음을 힘껏 내디더본다. 그리고 금시 푸르른 하늘이 보이거나 할것처럼 한껏 가슴을 벌리고 키낮은 천장을 올려다보곤 하였다.》

주인공 유철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새로운 시대의 한복판에 서게 되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으며 혁명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주체의 진리와 무장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새시대의 그 본질적특징을 체현하게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 운명행로는 혁명에 대한 그릇된 견해때문에 동지들과 인민들을 잃어버리고 갈길몰라 방황하던 《운동가》로부터 혁명의 진리를 받아안고 동지들과 인민들을 쟁취하고 굳게 결속시켜나가며 유격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참된 혁명가로의 발전과정으로 되었다.

장편소설 《환희》(김봉철)의 주인공 리충현지배인은 서로 다른 특징을 띤 시대변화발전과정을 체험한다. 즉 그는 시대발전의 경계선에 서보았고 그때마다 시대의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였다.

해방후와 조국해방전쟁 3년간, 천리마시대, 대안의 사업체계가 새롭게 펼친 사회주의수호전의 벽찬 시대, 이 시대의 변화발전에 대한 주인공의 체험에 대하여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정신적개화기란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현은 이 시대를 꼭 짚어 자기로서 규정을 짓고싶은 흥분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인간의 정신생활에서 이토록 거대한 양양기를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전쟁 3년간 그가 체험한것도 정신적양양기라고 역시 말할수 있겠지만 보다는 사랑과 증오의 대결, 수호자와 침략자의 사상의 대결앞에서 사람마다 자기 심장의 피를 더욱 뜨겁게, 더욱 붉게 해야 하는 이틀테면 조선인민의 피를 알게한 준엄한 시기였다. 그래서 3년간의 그 시절 수많은 노래와 시에 〈피〉라는 단어가 빠지는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 그것은 마치 만년기념탑의 밑에 든든한 기초를 박듯이 조국의 미래를 어떤 정신, 어떤 리념과 사상으로 떠받들어야 하는가 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경이할만 한 시기라고 충현은 굳이 믿고싶었다. 그리하여 조선사람의 혁명적진취성, 헌신성, 순결성이 자기의 수령, 자기의 당을 무한히 그리고 무조건 신뢰하는 투철한 인생관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그것이 인민의 성격으로 되는 바로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있다는 흥분을 충현은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것이였다.》

(새로운 천리마시대에 대한 체험)

《바로 우리의 대안체계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색의 결정물로 세상에 고고성을 터쳤고 근 30년가까이 자기의 정당성을 나날이 확고한것으로 증명해주고있는 것이다.

실은 이 30년이 되어오는 우리 나라 공업발전력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성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전위계급인 로동계급의 장성력사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들의 창조력, 그들의 헌신성과 열렬한 충실성은 완전히 그들을 새로운 성격으로 되게 했던것이다. 리충현은 자기자신도 지난 30여년간에 몇개의 대학을 거친듯 한 느낌으로 자신의 성장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는 때가 자주 있었다.》

《불가항력의 미지의 힘과 무한대한 공간의 그 모든 크기에 비해 인간은 한점의 먼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주보다 더 거대하고 더 심원한 자기 깊이가 있으며 더 심오한 자기 세계가 있는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때문에 인간이 우주속에 사는것이 아니라 인간속

에 우주가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것이 아닐가. 우리 시대에 와서 인간이 가질수 있는 그 세계는 보다 광활하고 보다 깊은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의 아름다움도 끝없이 새라새롭게 발견되는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업과 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시대, 나아가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보다 새라새롭게 발견되는 시대)

작품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시대에 대한 환희의 감정을 소리높이 웨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의 주인공은 시대의 변화발전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동시에 그 특징을 체현한 성격일수도 있고 혹은 단지 새시대의 특징만을 체현하고있는 성격일수도 있다.

장편소설 《먼길》의 주인공 최중열이 그러한 성격이다. 소설은 이전 시대의 과학자들과는 다른 새시대 과학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특징들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주인공 최중열은 새시대 과학자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특질을 체현하고있다.

이 경우에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발전과정을 체험하는 인물이 따로 설정되는데 작품에서는 그러한 체험자가 바로 박시봉교수이다.

소설에서 박시봉교수의 사건선은 기본사건을 깔아주는 지선으로서 두개의 장에 걸쳐 전개되는데 그것은 박시봉교수의 해방전 과학자로서의 생활과 해방후 수령님을 만나뵙고 전환된 새로운 시대의 과학자의 생활이다.

박시봉교수는 해방전 재능있는 금속공학전문가로서 그가 갈구한것은 과학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리상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교류학과 그 이후 일본에서의 연구소생활기간 시시각각 식민지지식인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였으며 해방을 맞은 평양에서도 나쁜 놈들의 박해를 받았다. 피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리상을 쫓피울 대지를 찾던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나서야 진정한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드디어 참된 삶의 길을 찾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과학연구에 모든것을 바친다.

박시봉의 두 시대에 대한 체험은 우리 과학자들이 지닌 정신도덕적면모 즉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라면 자기의 한생도, 목숨까지도 다 바쳐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본질적특징을 밝혀주는 바탕으로 되었다. 그의 제자들중 최중열이 바로 그의 이러한 삶의 지향을 그대로 안고있는 새 세대 과학자의 전형이다. 다시말하여 지난 시대의 과학자들과는 다른 새시대 과학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연구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려는 깨끗한 충정과 열정이 최중열에게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는것이다.

만약 장편소설 《먼길》에서 박시봉의 체험과정을 바탕으로 깔지 않고 다만 최중열의 생활만을 그렸더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시대문학으로서의 장편소설의 품격을 갖추기는 힘들었을것이다.

2.2. 시대변화발전의 개척자, 선구자로서의 성격

장편소설에서 시대변화발전의 개척자, 선구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은 그 새로운 발전에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마땅히 새로운 시대의 변화발전의 관조자, 관망자가 아니라 그 주도적흐름속에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장편소설의 주인공이 시대발전에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으로 발견되어야 하는것은 주인공이 인물형상집단의 대표자로 되어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방대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장편소설은 몇개의 인물형상집단들로 구분되는데 주인공은 기본인물형상집단의 대표자이다. 기본인물형상집단은 다른 인물형상집단에 비하여 사건진행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인물형상집단에 속한 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 인물형상집단의 대표자로 된다는것은 결국 그 형상집단의 사상정신적지향과 전형적특질들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은 자기가 안고있는 주제로부터 시대의 변화발전을 추동하는 인물형상집단과 그에 반동하는 인물형상집단간의 심각한 갈등을 그릴수밖에 없다.

장편소설의 주인공이 시대의 변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기본인물형상집단, 긍정적인물형상집단의 대표자가 된다는것은 곧 시대변화발전의 개척자, 선구자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개척자, 선구자라고 하여 주인공이 타고난 혁명가나 유명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주인공의 성격을 개척자, 선구자의 성격으로 탐구하면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의 유철과 같은 혁명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있고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에서의 전봉준과 같은 농민폭동군의 두령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있으며 장편소설 《탐구자의 한생》에서의 계응상박사와 같은 저명한 학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있고 장편소설 《환희》에서의 리충현지배인과 같은 행정일군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있으며 당정책관철의 선구자인 당일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소박하고 평범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보통의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들도 많다. 여기에는 장편소설 《피바다》의 어머니나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의 꽃분이기도 있으며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의 박세철이기도 있고 장편소설 《먼길》이나 장편소설 《청춘송가》의 최중열, 진호도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의 어머니는 일제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에 의하여 가정의 기둥으로 믿고 살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도 왜 이러한 참변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원통하게 통곡만 하던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활의 모진 시련과 세파속에서 점차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부녀회장으로, 폭동준비의 중요한 인물로, 성시해방전투의 앞장에 서고 연설을 통하여 대중의 가슴에 혁명의 불을 지피는 선구자로 자라난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장편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자기의 성격발전과정을 거쳐 다같이 시대가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을 체현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서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특별하게 부정적성격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소설에 대하여서도 논의할수 있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이나 장편소설 《그 녀자의 일생》 등이 그러하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의 주인공 그리고리 멜레호브는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의 진의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물이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전야로부터 1917년 2월 로씨야혁명과 사회주의10월혁명을 거쳐 공민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소련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돈지방 까자크들의 준엄한 계급투쟁을 그리고있다. 소설은 까자크마을 따따르스끼부

락의 농민청년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운명선을 주선으로 끌고가면서 당시의 복잡한 정세와 동란시기 돈까자크들의 생활사를 펼치고있다. 그리고리는 사회주의 10월혁명과 공민전쟁의 나날에 처음에는 붉은군대에 참가하여 잘 싸웠으나 동요를 일으켜 백과군대에 넘어가며 사단장까지 된다. 그는 붉은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악씨니야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고향 돈을 잊을수 없어 그만 주저앉고만다. 하지만 고향마을에서는 그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비적들의 무리속에 끼워 떠돌아다니다가 악씨니야마저 잃고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오고만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준엄한 계급투쟁마당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옮겨 찾지 못하고 인민과 떨어져나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운명을 견지 않으면 안되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혁명의 진리, 인생의 참된 행복에 관한 진리를 반증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이와 같이 일부 장편소설들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시대의 변화발전에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노는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물이나 무매한 희생물로 부정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주인공의 운명을 통하여 작가가 갈구하는 시대의 참된 모습,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반증하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2.3.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성격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성격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방대한 이야기줄거리를 중심에서 끌고나가야 할 장편소설의 주인공은 다른 형식의 소설의 주인공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있다. 독자들은 매 장이 바뀌고 사건이 발전해나감에 따라 주인공에게 더 큰 기대를 품게 된다. 주인공의 성격이 평범하고 빠드름하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사건들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은 독자들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장편소설의 주인공이 매력있는 성격으로 발견되어야 하는것은 주인공이 지닌 성격적매력이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줄거리의 극적견인력은 사건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에서 온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현상적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것에, 사건의 매력이 아니라 성격의 매력에 더 이끌리는것이 높은 미학관을 지닌 현시대 독자들의 일반적흐름이다.

주인공은 독자들에게 매번 새로운 기대감과 충격을 줄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마다 독자는 사건의 흐름이 전환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며 주인공으로 하여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것이며 그 사건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낳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나의 사건이나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사건들을 다루는 단편이나 중편소설과는 달리 방대한 이야기줄거리속에 수많은 사건들을 취급하는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이 등장할 때마다 독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이나 충격을 안겨준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만큼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그 모든 사건들을 주도하면서 독자들을 매혹과 감동의 연속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매력과 깊이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에서의 박세철, 전학민, 장편소설 《먼길》의 최중열,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유철, 장편소설 《태백산줄기》의 류성우 등은 다 독자들속에 매력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매력있는 성격은 독자들의 마음을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끊임없는 감정흐름속

으로 끌어들이면서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해명의 높이에 올라서는 성격이다.

매력있는 주인공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매력있는 주인공은 우선 작가가 발견한 주제를 체현한 새롭고 독특한 사상정신적 지향을 지닌 성격이다.

독자들의 흥미중에서도 가장 큰 흥미는 제기된 주제에 대한 흥미이며 그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흥미이다. 독자들은 일단 주제가 제기되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에게만 그 해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그 해답에 대하여 사색하게 된다. 그런데 주제해명의 직접적담당자인 주인공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주변의 등장인물들이나 독자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답을 내리고 그 해답이 경탄을 자아낼 만큼 고상하고 독창적인 것일 때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깊이 매혹되게 되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독자들의 마음을 한껏 틀어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바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숭고하고도 독창적인 사상정신세계에 있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위대성을 어떻게 형상하였는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열하원정로선으로 하여 전투에서 전우들을 다 잃고 혼자 돌아온 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벌을 청하는 주영찬중대장에게 수령님께서서는 동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죄였는가고 반문하시며 혁명가의 긍지를 잃어버리고 나약한 인간처럼 울고있는데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신다. 군사적규율과 전투의 승패를 두고 책임을 묻는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뜨거운 심장을 먼저 안아주시고 그 인간의 의지가 나약해지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 주영찬뿐 아니라 독자들도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하게 된다.

밀림을 겹겹이 포위한 적들속에서 어떻게 하면 포위를 뚫고나가겠는가에만 급급한 지휘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를 하자고,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라 열흘에 걸치는 회의를 열자고 하신다. 그것은 백만관동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물리칠 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이지 아니라 제 정신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잡는 회의로서 바로 인간의 사상정신적힘에서 난국을 타개할 방책을 찾으시는 수령님의 그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 지휘관 리철범은 크나큰 경모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주영찬을 비롯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가려주지 못해도 상처입은 몸이나마 감싸주고 싶다시며 전부대에 새 군복을 해입힐 긴급명령을 내리시는 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리철범뿐 아닌 온 부대를 놀라움과 무한한 격동속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처럼 그 누구도 아직 생각할 수 없었던 사상정신적 높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독창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바로 독자들을 무한히 그러잡는 성격적 매력의 기본요인이 있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비전향장기수송환투쟁을 펼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매혹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 이것은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발생한 문제였으며 그만큼 그 해결은 복잡한 시련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작품에서는 비전향장기수송환투쟁을 단순히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는가 마는가 하는 실무적과정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신념으로 일관된 그들의 한생에 대한 평가문제, 그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 력사의 흐름이 정의와 진리에로 흐르는가 마는가 하는 심각한 시대적문제로 보시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하고 탁월한 사상 정신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들은 물론 독자들에게 혁명가들의 삶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격조높은 흠모와 매혹의 감정에 휩싸이도록 하고있다.

일반장편소설에서도 주인공의 성격적매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은 다름아닌 제기된 주제에 대하는 보통의 상식을 훨씬 벗어나는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적지향이다.

장편소설 《환희》의 리충현지배인의 사상정신세계는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우에 서있는것으로 하여 매번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하며 그들을 매혹시키고있다.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단순한 생산실무적문제로가 아니라 기업관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보며 진정한 주인의 립장에서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는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적지향은 사람들의 심금을 짝 들어잡고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시종 격동시킨다.

소설이 모두 5개 장, 36개의 절로 되어있는데 주인공이 자기의 높고 독특한 사상정신세계로 등장인물들과 독자들을 놀래우는 회수는 거의 30여차나 된다. 이것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절을 빼놓는다면 거의 매 장면마다에서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가 독자들을 매혹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작가가 주인공의 사상정신적지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 힘을 넣었는가를 말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주인공의 사상정신적지향이 그의 성격적매력을 결정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매력있는 주인공은 또한 아름답고 고상한 료리도덕적품성들을 바탕으로 가지고있는 성격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적바탕이 없다면 그런 성격은 독자들의 미적감정에 배척되는것으로서 흥미를 끌수 없는것은 물론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된다. 부정주인공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그의 운명에 대한 아픔과 동정심을 느끼는것은 그 주인공의 성격이 시대의 주도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사상정신적지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인간적바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물론 시대의 지향에 따라 성격의 미의 기준도 달라진다. 보는 독자의 눈도, 주인공이 체현하고있는 성격의 미도 다 달라진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며 주인공의 성격을 아름답고 매력있게 한 바탕, 고유한 징표들은 변함이 없다. 그러한 징표들은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 용감성, 정의감과 같은 아름답고 고상한 료리도덕적인것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우에 당대의 시대정신과 특징들을 체현시킨 성격은 새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성격으로, 시대의 주인공들로 문학사를 장식해왔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주인공 유철의 성격적매력은 그가 지닌 조국에 대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인정미, 그의 대바르고 솔직한 품성, 의리심과 같은 료리도덕적품성들에 바탕을 두고있다.

안해의 무덤앞에서 주인공의 이와 같은 료리도덕적품성들이 집중적으로 보여지고있다. 안해의 무덤을 처음 찾았을 때에는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던 주인공이 혁명의 길로 떠나면서 안해의 봉분을 다시 찾아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한껏 그러잡는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안해와의 사랑에 대한 그 다함없는 솔직성, 혁명동지로서, 인간으로서 안해에 대하여 이미 간직되어있었고 또 가슴속에 새롭게 자라나고있는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나타나고있다.

그의 이러한 성격적바탕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혁명은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상을 받아안은 다음부터 더욱 뚜렷하게 발휘되었다.

박병섭로인, 박두성, 김익보, 박두현, 로채숙, 쌍가매, 봉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을 대함에 있어서 독자들을 무한히 감동시키고 놀래우는것은 그들에 대한 뜨거운 인간적, 동지적사랑의 열정이였다. 바로 이것이 주인공 유철을 매력있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룹리도덕적바탕이다.

장편소설 《먼길》에서 주인공 최중열의 성격적매력을 이루는 바탕을 더 살펴보자.

자기의 애인과 결별하는 편지를 쓰는 첫 장면에서부터 주인공의 성격은 독자들을 매혹시킨다.

그의 성격에서 핵은 높은 이상을 안고 과학연구의 먼길을 끝까지 가려는 지향이다. 그리고 애인과의 작별이 가져다주는 고통에 대한 솔직한 마음, 그의 정신적지향이 낮은 데 대하여서는 지적하지만 결코 그를 비난하지는 않는 너그러움과 아량, 비록 고독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리라는 의지가 그의 성격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다 독자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감동적인 성격으로서 매력적인 성격의 바탕을 이룬다.

매력있는 주인공은 또한 성격을 이루는 내면세계, 기질적측면, 외형적모습 등 매 요소들간의 대조가 뚜렷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있는 성격이다.

고뇌와 희열, 불행과 행복, 눈물과 웃음을 안고사는 구체적인 인간의 생활속에서 형성되고 표현되는 성격은 일면적일수 없다. 현실에서 사람의 성격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일되어있을뿐아니라 그 결합상태가 매우 다양하다. 아무리 사상 정신적지향이 높고 인간성이 풍부하며 기질이 뚜렷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성격의 요소들이 일면적으로, 일방적으로만 표현된다면 그러한 성격은 결코 독자들의 감정을 쥐었다놓았다 하는 매력있는 성격이라고 말할수 없다. 매력적인 성격은 오직 이 모든 요소들의 조화로운 결합과 통일속에서 나타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유철의 성격적매력이 어떤 조화로 표현되는가를 보자.

《안해의 죽음앞에서 사나이가 울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러나 우직 우직 타들어가는 불길앞에 선 안해의 모습과 그 결국하고 청백한 마음을 생각하며 유철은 아낌없이 울었다. 무덤에 눈은 쌓이고 유철은 바위처럼 굳어져서 오래오래 움직일줄 몰랐다.》

(바위같은 억셈과 다감한 감정의 조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혁명의 길로 떠나는 결단성)

《두현은 자기 손을 감싸쥐고 힘을 주는 크고 아귀찬 칠성(유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꺾꺾하게 못이 박힌 로동속에서 굳어진 그 손 그리고 넓고 시원한 이마와 서늘하게 빛나는 눈, 노닥노닥 기운 토스레를 걸친 이 마차군에게서 오는 뜨거운 인간의 정과 품위 그리고 섬세한 정서와 활달한 식견은 어쩌면 그렇게도 잘 조화되는것일까?》

(꺾꺾하게 굳어진 손과 얼굴에 비낀 지성미의 조화, 람루한 옷차림과 뜨거운 인정미와 높은 인격의 조화, 섬세한 정서와 활달한 식견의 조화)

《등불아래 척 일어난 품이 전에 없이 록록잖아 보인다. 몸집도 거울지지만 이목구비가 준수한것이 우선 출중하다. 이마며 눈매는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거조가 조심스러워 스스로 낮추 굽히려 하지만 어딘가 사람을 그러잡는 힘이 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와 거울지고 출중한 외모의 조화, 스스로 낮추 굽히려 하는 마음과 사람을 그러잡는 힘의 조화)

이와 반면에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의 주인공 계응상의 성격은 그의 고상하고 높은 과학탐구정신, 조국애, 탐구심, 정열, 인정미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마음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매력있는 문학적성격으로까지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독자들은 그가 걸어온 인생행로들을 함께 헤쳐오지만 주인공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성격으로 인한 기대나 실례임보다는 그가 실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을 알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물론 모든것을 실지 있는 사실에 충실하다는 실화소설로서의 특성에도 기인되는것이겠지만 실화소설도 소설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주인공에게서 성격의 조화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리는데 모를 박았더라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도 남기고있다.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중에서 매력있는 성격의 실례들을 더 들어보자.

·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나 의지가 강한 사람-《피바다》의 어머니, 《시대의 탄생》의 박세철

· 인정에 무르나 용감하고 결단성있는 사람-《피바다》의 어머니

· 군인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으나 매우 지성적이고 유연한 사람-《시대의 탄생》의 전학민

· 절도있고 행정하지만 뜨겁고 따스한 사람-《시대의 탄생》의 전학민

· 생기발랄하고 젊었으나 일처리가 매우 단수높고 로숙한 사람-《시대의 탄생》의 전학민

· 말이 없고 바위처럼 끔찍없이 보이나 매우 다감하고 뜨거운 사람-《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유철

·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으나 생활의 진실앞에서는 결단성있게 끊을줄도 아는 사람-《먼길》의 최중열

· 처녀앞에 곰살궂고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자존심은 매우 높은 사람-《먼길》의 최중열

· 모든것을 회의적으로 대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개선문》의 라비크, 《전쟁과 평화》의 안드레이 볼콘스키

이외에도 그 조화로운 결합은 많다. 엉뚱한 말을 하는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논리정연하고 총명한 사람, 차고 날카로워보이지만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 누구나 쳐다보는 대단한 능력과 권리를 가졌으나 소박한 사람에 대한 사랑때문에 고민하는 성격, 어리숙해보였으나 매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있는 사람, 가장 포악한 외피를 썼으나 자애와 리지를 겸비한 사람, 더없이 유약해보였으나 가장 맹렬하고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 등이다.

매력있는 성격들은 그 표현이 다면적이며 다채롭다. 2중 더 나아가서 3중, 4중으로 대조되며 결합되는 성격들일수록 더욱 매력있게 될수 있다는 결론도 내릴수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장편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의 성격발견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첫째로, 장편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은 마땅히 장편소설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되며 장편소설의 무게를 보장할수 있는 성격으로 탐구발견되어야 한다는것, 둘

째로, 장편소설의 격을 갖춘 주인공창조의 형상적요구는 시대변화발전의 체험자, 주동자,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성격들로 되게 하는데 있다는 등의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변천하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숨쉬고 활동하는 산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풍만한 장편소설의 고유한 매력속에 세련된 형상을 펼친다면 현시기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명작장편소설들이 더 많이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장편소설, 시대, 체험자, 매력